

스포츠 포커스

전남 바이애슬론 대표팀

동계스포츠 불모지서  
땀으로 일군 전국 최강



왼쪽부터 배창환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 조인희 선수, 문지희 선수, 김상욱 전남바이애슬론 전무이사, 이봉우 대한바이애슬론연맹전무이사.



조인희

문지희

“이젠 세계로...  
월드컵 대회  
30위권 목표”

눈이 아닌 땅위에서 바이애슬론 대회가 열린다? 동계 스포츠 종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바이애슬론(스키 거리경기와 사격이 혼합) 대회가 6월에 열린다고 하면 모두 의아해 할 것이다.

최근 나주 영산포에서 제25회 회장배 전국동계바이애슬론대회(스키 거리경기와 사격이 혼합)와 조인희(19·전남체육회)선수가 각각 금, 은 1위를 획득해 동계스포츠 종목의 불모지 전남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윤혜윤(21·전남체육회)선수는 부상으로 컨디션 조절에 힘을 쏟고 있다.

하계 바이애슬론대회는 동계종목과 달리 1km를 달리고 복사(업드러 썬) 다섯발을 사격한 다음 다시 1km를 달리고, 입사(서서썬)로 다섯발을 사격한 다음 다시 1km를 뛰고 끝인하면 되는 경기로 동계 종목 선수들의 경기감각을 살리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회로 열리고 있다.

조인희·문지희 선수는 전남이 동계스포츠 불모지임에도 바이애슬론에서는 전국 최강의 전력을 보여준 한 장애인이다. 전북 출신인 이들은 이번 대회뿐 아니라 지난 2008 제89회 동계체전에서 조인희는 계주와 스프린트, 개인경기에서 3관왕에 올랐으며 문지희도 은메달 4개를 획득해 전남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특히 문지희 선수는 지난 평창에서 열린 월드컵 7차대회에서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사상 최초로 37위에 올라 대한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1천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한 한국 바이애슬론 대스타이다.

전북 무주중학교와 무주고를 함께 다니며 단짝 친구이

기도 한 이들은 고교 졸업 후 나란히 전남체육회에 입단해 이제 전남사람이 다 됐다.

조인희와 문지희는 “전라북도도 호남이기 때문에 전남이 고향이나 다름없다”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드컵에서 30위권에 들어 고향과 한국을 빛내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들 두 선수의 선전에는 김상욱 전남 바이애슬론 전무이사(국가대표 코치)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가 바탕이 됐다.

회장배 하계 바이애슬론대회서

문지희 금 2, 조인희 금 1개 획득

김상욱 코치 헌신적 지도도 한몫

광주 서강중학교시절 육상 중장거리 선수생활을 했던 김 전무는 전남체육고 1학년 때 처음 바이애슬론에 입문, 2년만에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지난 1988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됐다.

하지만 당시 동계스포츠 불모인 전남출신으로는 강원도 인백으로 형성된 대학팀으로 가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2년간 국가대표 생활을 했다. 또한 군 복무중인 31사단 단기 사병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김 전무는 88년 69회·89년 70회 동계전국체전에서 각각 2관왕에 올랐고, 1990년 삿포로 동계아시아게임 단체전 3

위에 오르는 등 공로가 인정돼 1990년 체육훈장을 받기도 했다.

희박한 현역생활을 했지만 김 전무는 동계운동 불모지인 전남출신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모든 동계종목은 강원도 출신이 아니면 실업이나 대학에 적을 둘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군 제대후에도 실업팀이나 대학에 소속이 결정되지 않아 결국 운동을 접어야 했다.

2002년에는 국가대표를 지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역시 강원도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와 전남에 팀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만에 사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무의 바이애슬론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인정돼 지난 2005년 국가대표팀 코치로 발탁돼 현재까지 선수들을 지도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전무는 “전남이 동계 스포츠 불모지로 끌어주는 선배가 없어 무소속으로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된 후 곧바로 고향에 팀이 없어 사임했을 때는 운동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지난 2003년 전남근대5종 바이애슬론 연맹이 분리되면서 바이애슬론 전무이사를 맡아 2007년 1월 팀을 창단, 1년만인 제89회 전국 동계체전에서 금3 은4개의 위업을 달성했다.

김 전무의 바람은 정식으로 팀이 창단 돼 전남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김 전무와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꿈인 팀 창단이 가시화 돼 동계스포츠 불모지 전남 팀이 전국에 위상을 떨칠 날을 기대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상욱 전남바이애슬론 전무이사 선수들의 복사 사격자세를 교정해주고 있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하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various businesses including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with a grid of 30+ small ads for services like food, real estate, and education.